

주문 문(중문)(아스카 시대 국보)

위풍당당한 모습의 주문 문(중문)은 오층탑과 금당이 있는 호류지 절의 서원 가람으로 통하는 입구입니다. 금강역사(인왕)로 알려진 2구의 강렬한 수호신상이 문양 옆에 서 있습니다. 금강역사상은 호류지 절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1,300여 년에 걸쳐 계속해서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문에는 문짝이 달린 입구가 하나가 아니라, 기둥을 사이에 두고 2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로 가람 내의 건물 배치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건물이 일직선상에 들어선 동시대의 다른 사원과는 달리, 호류지 절에는 금당과 오층탑이 가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반영해 주문 문의 입구도 분할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다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둥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그 밖의 주문 문의 특징으로는 불쑥 튀어나온 차양과 이를 지탱하는 완목(가로대)의 복잡한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완목은 구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스카 시대(593~710년) 건축 양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